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정군오¹, 임응순^{2*}

¹호서대학교 경제학과, ²호서대학교 경제연구소

A Comparative Study on Economic Effect of life insurance and indemnity insurance Industry

Kun-Oh Jung¹ and Eung-Soon Lim^{2*}

¹Department of Economics, Hoseo University

²Economic Research Institute, Hoseo University

요약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이 높은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손해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원, 취업유발효과는 26.9명, 물가파급효과는 2.0%로 분석되었다. 반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6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원, 취업유발효과는 16.5명, 물가파급효과는 1.2%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산업이 생명보험산업의 파급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interest in personal health is now growing around the world. Accordingly, the insurance industr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personal health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surance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o main stream, life insurance and indemnity insurance.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indemnity insurance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employ-inducing effect, sectoral price effect using Exogenous spec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indemnity insurance industry induces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2.7 won, value-added-inducing effects of 1.6 won, employ-inducing effect of 26.9 person, sectoral price effects is 2.0%. On the other hand, life insurance industry induces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1.6 won, value-added-inducing effects of 1.0 won, employ-inducing effect of 16.5 person, sectoral price effects is 1.2%. Overall, indemnity inducements has higher economic impacts than life insurance.

Key Words : Life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Inter-industry analysis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고령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계,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개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건강의 유지와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보험산업에 관심을 갖게된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교신저자 : 임응순(bristgirl@gmail.com)

접수일 10년 12월 01일

수정일 11년 02월 07일

게재확정일 11년 02월 10일

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산업은 주로 사람의 생사에 관한 사고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향후 생명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후 향후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는 22개사의 생명보험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은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 다르다. 현재 28개사의 손해보험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고도의 경제발전,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정책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등이 아우러져 빠르고 강력한 성장을 거듭함으로써, 한국의 생명보험업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생명보험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다[3].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각 계층별 사회보장욕구의 증대, 소비자보호 운동의 확산과 의식구조의 다변화, 공제 및 각종 연금제도 등의 급격한 신장은 은행, 증권, 단자회사 등 각 금융기관간의 상호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보험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4].

이렇듯 국내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국내 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위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경제적 위치와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에는 산업연관분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다.

산업연관분석이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8].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하다[1,9].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보험산업을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구분하여 두 보험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Ⅲ절에서는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의 기본구도를 설명하고 나서, 연구에 사용될 여러 모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 한다. Ⅳ절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험산업의 정의를 제시 할 것이며, Ⅴ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절은 분석의 주요 분

석결과와 시사점으로 할애한다.

2. 보험산업의 현황 및 선행연구

2.1 보험산업 현황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2009년 361조 4천억원으로 2000년의 120조 5천억원보다 3배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 손해보험산업의 2009년 총자산은 82조 9천억원이다. 이는 2000년 29조원과 비교해볼 때, 2.5배정도가 증가한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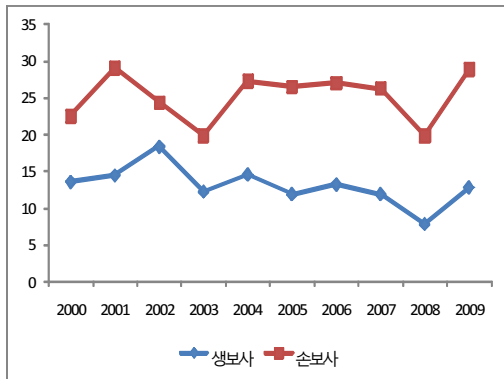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생명보험산업이 손해보험산업에 비해 총자산의 규모가 4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총자산
(단위: 십억원, %)

	생보사 총자산	손보사 총자산
2000	120,509[13.6]	29,030[8.9]
2001	137,962[14.5]	33,256[14.6]
2002	163,295[18.4]	35,253[6.0]
2003	183,237[12.2]	37,933[7.6]
2004	209,907[14.6]	42,749[12.7]
2005	234,766[11.8]	49,018[14.7]
2006	265,780[13.2]	55,798[13.8]
2007	297,339[11.9]	63,828[14.4]
2008	320,408[7.8]	71,526[12.1]
2009	361,432[12.8]	82,998[16.0]

주: []안의 숫자는 증가율을 의미함.출처: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에서는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손해보험사의 총자산이 감소한데 비해 생명보험산업은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반적인 증가율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산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림 1]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증가율(단위: %)

2.2 선행연구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험산업을 중점으로 한 연구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2]의 연구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계수를 산출하여 국민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산유발계수는 1.455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959원, 고용유발계수는 20.10명으로 분석되었다. 생명보험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장기성 자금을 보유하고 고용창출 산업인 생명보험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도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의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손해보험회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산업의 총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로는 국내 자동차보험산업이 만성적인 적자산업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총액으로 보험영업손실 2.89조원에 불고하고, 3.8조원의 투자영업이익으로 약 1조원의 총영업이익을 시현하여 자동차보험산업이 적자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6]의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보험산업 가운데 특히 생명보험 산업의 효율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변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생명보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두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보험영업 또는 운영 측면의 영업효율성과 자산운용의 투자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보험회사 전체의 효율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효율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DEA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방법 가운데 유해한 산출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절한 분석방법인 방향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렇듯 보험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는 생명보험산업에 국한되어 있거나, 금융산업 등 타 산업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2003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최신인 [1]을 이용하여 외생화기법을 적용하여 보험산업을 분석할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분리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분석기법을 수요측면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물가파급효과까지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3. 연구방법론

3.1 수요유도형 모형

3.1.1 생산유발효과

산업연관분석은 분석산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대상인 분석산업(H)을 외생화한 행렬에 ‘e’란 상첨자를 붙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이 유도된다.

$$\Delta X^e = (I - A^e)^{-1} (A_H^e \Delta X_H) \quad (1)$$

여기서, ΔX^e 는 분석대상인 H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 변화분을 의미한다. $(I - A^e)^{-1}$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H 부문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낸다. A_H^e 는 투입계수행렬 A 의 H 부문을 나타내는 열벡터에서 H 부문 원소를 제외하고 남은 열벡터이며, X_H 는 H 부문의 산출액을 나타낸다.

3.1.2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산업의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산업을 외생화하면 다음 식이 유도된다.

$$\Delta V^e = \widehat{A}^e (I - A^e)^{-1} (A_H^e \Delta X_H^e) \quad (2)$$

ΔV^e 는 분석대상인 H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부가가치 변화분을 의미한다. \widehat{A}^{v^e} 은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분석산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미한다.

3.1.3 취업유발효과

분석산업 부분의 산출액이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산업 부분을 외생화 시켜야 한다. 분석산업 부분을 외생화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e = \widehat{m}^e \Delta X^e = \widehat{m}^e (I - A)^{-1} (A_H^e \Delta X_H) \quad (3)$$

단, M^e 는 분석산업을 제외한 각 부분별 취업자수를 나타내며, \widehat{m}^e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분석산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이다.

3.2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본 연구에서는 금액단위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물단위의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격 정규화 방법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 정규화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대상인 H 부분을 외생화하여 정리하면 식 (5)가 된다.

$$\Delta \overline{P}_e = (I - A^{e'})^{-1} A_H^{e'} \Delta \overline{P}_H \quad (5)$$

여기서, $\Delta \overline{P}_e$ 는 H 부분이 제외된 가격변동을 벡터이며, $\Delta \overline{P}_H$ 는 H 부분의 가격변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A_H^{e'}$ 는 $A^{e'}$ 의 H 부분 열벡터에서 H 부분 원소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식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산업연관분석해설을 바탕으로 재정리 한 것이다.

4. 자료

4.1 산출액 추계

생명보험산업은 일반생명보험 이외에 우체국보험과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 공제회, 농·수협공제 중 생명보험 성격이 있는 부분을 포괄한다.

산출액 추계는 생명보험 중 일반생명보험과 공제사업회계 중 농·수협공제의 공제사업회계에 대한 산출액은 보

험료 수입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책임준비금 순증액을 차감하여 귀속보험료를 산출한 후 여기에 수수료 수입 등 투자수익액을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기타 공제사업과 연금기금 등에 대하여는 동 사업의 운용을 위한 경상경비지출액을 산출액에 추가하였다.

손해보험산업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재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보중보험 및 건설 및 전문건설, 해운, 택시, 조선, 버스, 화물차, 대한설비, 한국지방재정, 소프트웨어, 폐기물재활용, 기계, 전기공사, 특수판매 등의 공제조합과 농·수협공제 중 손해보험관련 부분을 포괄한다. 또한 수출보험도 손해보험에서 포괄한다.

산출액 추계는 보험료 수입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책임준비금 순증액을 차감한 귀속보험료에 투자수익액을 합하여 산출액을 추계하였다. 수출보험의 경우 비영리 정책보험임을 감안하여 2000년 방법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의 산출액 추계방법인 경상경비지출액을 산출액으로 하였다.

4.2 자료의 출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전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2] 산업연관표 상 보험산업의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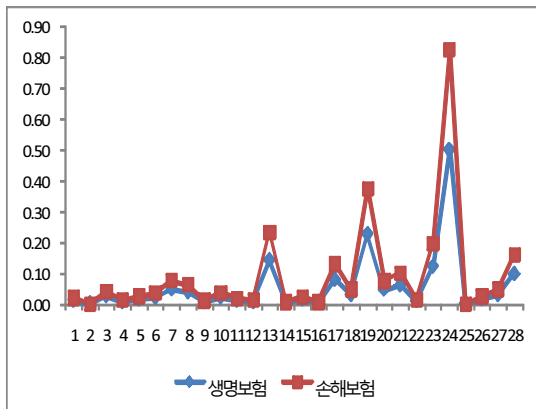
부 문	산업명	부 문	산업명	부 문	산업명
1	농림수산물	11	금속제품	21	운수 및 보관
2	광산물	12	일반기계	22	통신 및 방송
3	음식료품	13	전기 및 전자기기	23	금융 및 보험관련
4	섬유 및 가죽제품	14	정밀기기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	목재 및 종이제품	15	수송장비	25	공공행정 및 국방
6	인쇄,출판 및 복제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6	교육 및 보건
7	석유 및 석탄제품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8	화학제품	18	건설	28	기타
9	비금속광물 제품	19	도소매	29	생명보험산업
10	제2차금속제품	20	음식점 및 숙박		손해보험산업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에는 대분류(28), 중분류(77), 기본부문(403)으로 산업이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부문에서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을 따로 분리하여 대분류의 기준으로 29부문으로 재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기법을 외생화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외생화를 함으로써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자기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산업의 순수한 파급효과만을 살펴볼 수 있다. 손해보험산업은 기본부문의 352부문이며, 생명보험산업은 기본부문 351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5. 분석결과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부문을 각각 외생화하여, 수요유도형 모형을 통해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부문에 1원을 투자하였을 때, 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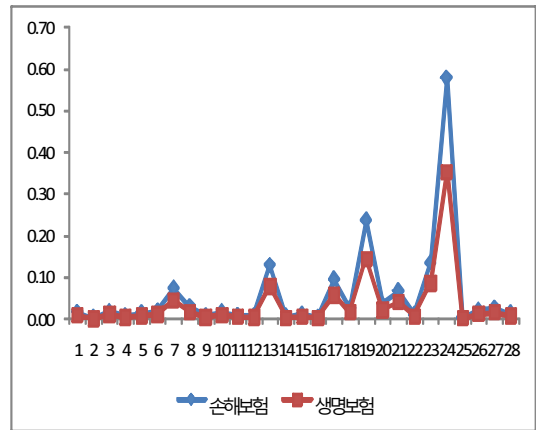
그림 2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손해보험산업의 1원 생산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제24부문)가 0.8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소매(제19부문)이 0.38원, 전기 및 전자기(제13부문)이 0.24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광산품(제2부문)은 0.00원으로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산업에서 1원 생산 증가는 타 산업에서 2.69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명보험산업 1원 생산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제24부문)가 0.1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 및 방송(제22부문)이 0.08원, 금융 및 보험(제23부문)이 0.06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제25부문)과 광산품

(제2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0.00원, 0.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명보험산업에서 1원 생산 증가는 타 산업에서 1.65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산유발효과는 손해보험산업이 생명보험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결과는 그림 3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손해보험산업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24부문)이 0.58원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반면에 광산품(2부문)은 0.00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타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1.59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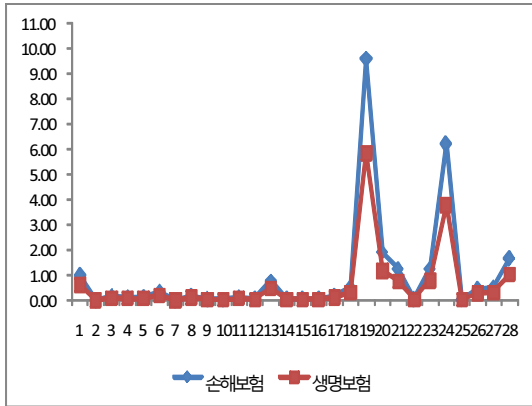
[그림 3]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결과

생명보험산업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24부문)이 0.35원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반면에 광산품(2부문)은 0.00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타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0.97원으로 분석되었다. 두 산업을 비교해보면 손해보험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나있다. 손해보험산업에서는 도소매(19부문)에서 9.57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값으로 분석되었으나, 반면에 광산품(2부문)에서는 0.01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로는 26.93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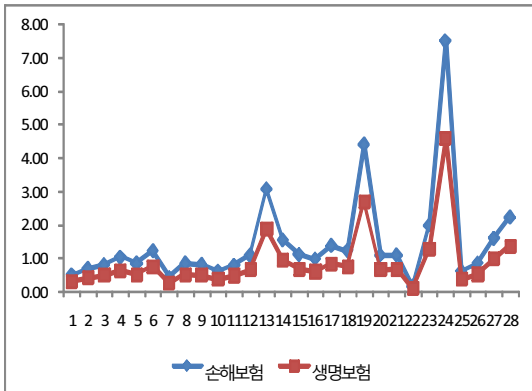
생명보험산업에서는 도소매(19부문)에서 5.84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산업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광산품(2부문)에서는 0.01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낮은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로는 16.46명의 취업을

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

물가파급효과 분석결과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물가파급효과 분석결과

손해보험산업에서 10%의 가격상승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4부문)에서는 7.52%의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신 및 방송(22부문)에서는 0.12%의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타산업 전반에 살펴보기 위하여 가중평균한 값은 2.02%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산업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4부문)에서 4.59%의 가격상승이 일어났으며, 반면에 통신 및 방송(22부문)에서는 0.10%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 산업 전반에는 1.24%의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파급효과 역시 손해보험산업이 생명보험산업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6. 주요분석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보험산업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험산업에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으로 분류가 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각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요유도형 모형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보험산업에서의 가격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물가파급효과까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와 경우 손해보험산업이 생명보험산업에 비해 국민경제에 더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할 경우 손해보험산업부문에 투자비용을 높임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물가파급효과와 결과는 손해보험산업에서 10%의 가격상승이 일어나면 국민경제전반에 전반에 2.02%의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명보험산업에서는 1.24%의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에서의 가격 상승이 생명보험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산업에서의 매출액은 보험료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곧 보험가입자들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손해보험산업이 국내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보험료에 대한 변화를 시킨다면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보험산업에 대한 연구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험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 예를 들면 생산유발효과와 경우 비용-편익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물가파급효과와 경우 요급부문의 변화를 시킬 경우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다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타 국가(선진국가)와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보다 더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관표의 단점을 보완한 RAS기법을 이용한다면 미래에 대한 분석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문은 추후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1]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2000.
- [2] 김종국, 송덕진, “생명보험산업의 국민경제 효과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80집, pp.203- 238, 2008.
- [3] 남상욱, “한국 생명보험업의 경쟁도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제85집, pp. 1-27, 2010.
- [4] 이정우, 유한주, “ 한국 보험산업의 서비스품질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제31권 제1호, pp. 42-61, 2003.
- [5] 이원돈, “자동차보험은 적자산업인가?”, 보험학회지, 제79권, pp. 221-245, 2008.
- [6] 안경애,이해춘, “한국 생명보험 산업의 DDF 생산효율성 분석”, 생산성논집. 제21권 제3호, pp.123-151, 2007.
- [7]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2008.
- [8] Ghosh,A, "Input-Output Approach to an Allocative System", *Economica*, 25(1), pp. 58-64. 1958.
- [9] Wu, R. H. and C. Y. Chen, "On the Application of Input-Output Analysis to Energy Issues", *Energy Economics*, 12(1), pp. 71-76. 1990.

임응순(Eung-Soon Lim)

[정회원]



- 2002년 2월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4년 8월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2010년 2월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11년 1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응용미시, 산업조직, 정치경제

정군오(Jung, Kun-Oh)

[정회원]



- 1981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1983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1988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산업조직, 기술경제, 인터넷경제